

시끌벅적 e-스타



피서지 꿀벌전 '베스트 6'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갔더니... 기본 좋은 일단 있는 것은 아니다. 더위를 피해 한달음에 달려간 피서지. 일상을 벗어난 그곳에는 물러간 피서 인과 속에 달갑지 않는 꿀벌전들도 존재한다.

올렸었다. 남성들 눈동자 바빠 움직이게 하는 바다 노출도 반갑지는 않다. 해변의 시원한 비키니와 여름의 제맛이라지만 과도한 노출로 눈돌 곳 없게 만드는 이들 꿀벌전이다.

오늘의 유머

▲그때 그때 달라요

부부가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 함께 해변으로 휴가를 갔다. 산책을 하던 아들이 한 아름다운 여자가 비키니 차림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와아~'하고 외쳤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보고 말했다.

▲미술시간

유치원 미술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도화지 앞면을 전부 검정색으로 칠하기 시작했다.

▲회사와 감옥의 차이점

감옥 - 대부분의 시간을 4평짜리 방에서 지낸다. 회사 - 대부분의 시간을 1평짜리 책상에서 지낸다. 감옥 - 하루에 3번의 식사제공을 받는다. 회사 - 하루에 한 번의 식사 할 시간을 제공 받는다.

이나 용돈을 준비해서 찾아온다. 회사 - 동료가 결혼을 하면 돈을 내야 한다.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점

목욕탕에서 수건을 몸에 두르면 아가씨, 머리에 두르면 아줌마. 피마할 때 예쁘게 해달라면 아가씨, 오래가게 해달라면 아줌마. 의자에 앉을 때 다리 꼬면 아가씨, 한쪽 다리 접어 앉으면 아줌마.

▲유치장 이야기

경찰서 유치장에서 만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유치장에 온 이유를 물었다. "형씨는 무슨 죄로 여기 들어왔소?" "나는 길가에 새끼풀이 있기에 주웠다가 잡혀 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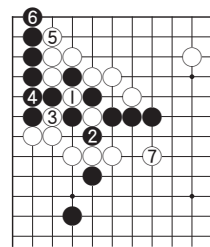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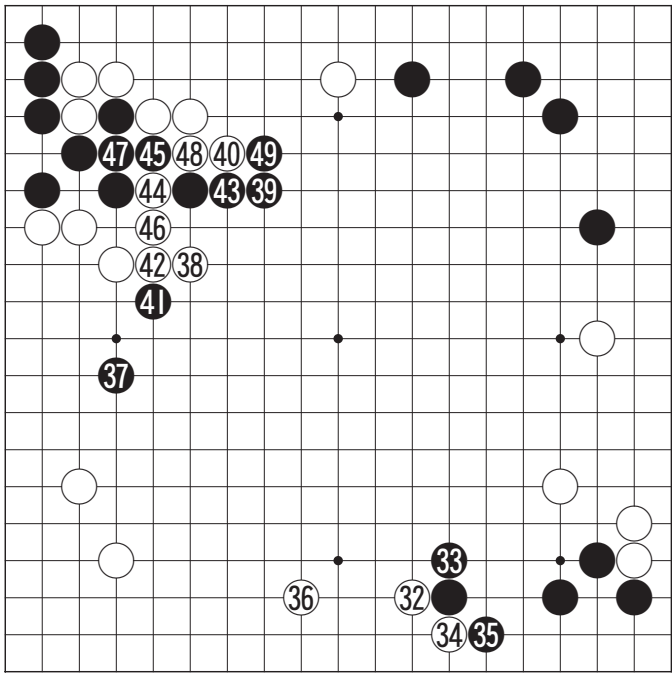
바둑소식

조훈현, 세계 최초 2500대국 달성 눈앞

'바둑황제' 조훈현 9단이 세계 최초로 통산 2천500대국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조 9단은 오는 10일 일산 킨텍스 3층 그랜드볼룸에서 벌어지는 한국바둑리그 경기투어에서 대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대변화를 일으킨 기쁨수

4회전 3국 3보 (32~49) 白 허우석 5단 (북구청) 黑 김영수 5단 (전남교사회)



<참고도>

허우석 5단은 흰바둑에다가 재치가 넘치는 기풍이다. 백 32로 붙여간에서 이 같은 허 5단의 재치를 엿볼 수 있다.

파위는 가히 하수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이 판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도 두대국자의 파워게임이 흥미를 고조시키기 때문이다.

굿모닝 잉글리쉬 <1219>

What do you know?

어떠신가요?

A : What do you know? B : Not much. Can you believe it's already the end of Summer? A : Crazy, isn't it? B : yeah, I just got used to writing Summer on all my documents.

오하오우 니혼고 <1219>

辺(へん)でおやつにしましょうか

이쯤에서 새참 먹을까요?

A : コンピュータの画面(がめん)をずっと見てたから、目が疲(つか)れてきましたよ。 B : ええ、休憩(きゅうけい)しながらやらないと、肩(かた)も凝(こ)ってきますよ。

니하오 쑹구위 <196>

为我们的友谊，干杯！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건배!

A: 这些菜都是谁做的? zhè xiē cài dōu shì shuí zuò de? B: 都是我做的。你多吃点。 dōu shì wǒ zuò de. nǐ duō chī diǎn

한자 이야기 <836>

不恥下問(불치하문)

아닐 불, 부끄러울 처, 아래 하, 물음 문

불치하문(不恥下問)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의혹(疑惑)되는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물어 식견(識見)을 넓히려는 말이다.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ext: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